

독도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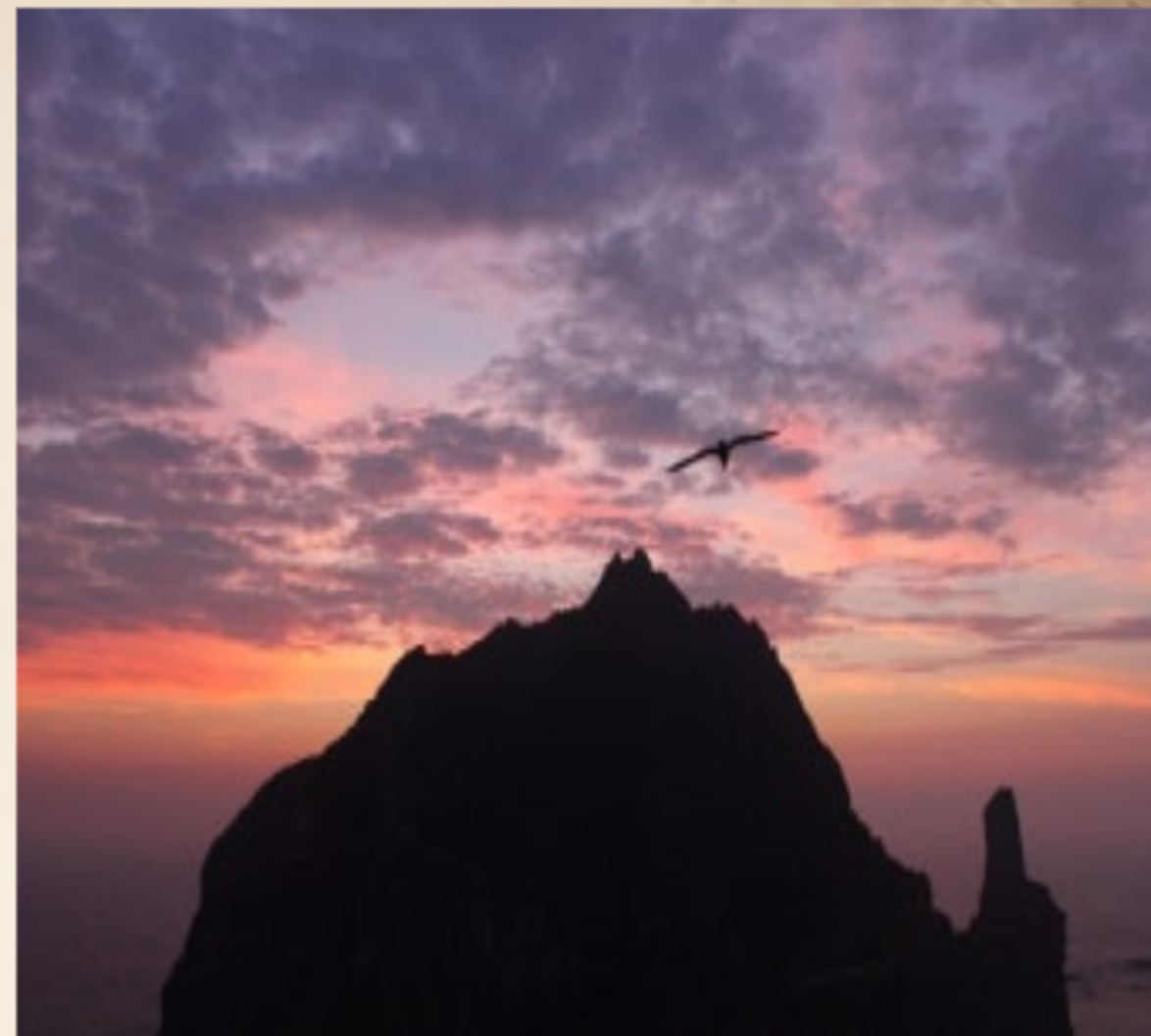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역사와 기억이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에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따라 독도는 울릉군 소속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무단으로 편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기억하는 이유는 단지 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와 역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기억을 간직하고, 지속적으로 독도의 자원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출처: 네이버 이미지

독도, 지켜온 시간의 상징

"지금은 전쟁이 없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켜야 할 바다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수많은 세월을 거쳐 지켜온 시간의 상징이며,
우리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자, 민족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독도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영토 수호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를 이어가는 일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 바다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바다에는 우리 선조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독도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영토를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가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바다는 그저 하나의 땅이 아니라
우리 역사와 정신을 잇는 끈이며, 미래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예전 독도 의용수비대와 평화의 비둘기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

독도를 지키는 일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2018년 교육부는 독도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강화했지만,
여전히 일본은 본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독도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독도는 단순한 자연 유산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삶의 일부입니다.

외교부와 다양한 기관들이 진행하는 '독도 사랑 캠페인'처럼,
우리가 직접 독도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독도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속 가능한 보존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출처: 네이버 이미지

우리의 손으로 세울 미래

독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나갈 미래의 상징입니다.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는 그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이날 우리는 독도를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독도를 지키는 일은 바로 후손들에게 전할 역사를 온전히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독도의 존재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고,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후세에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기억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어,
우리는 모두 함께 '기억 위에 세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홍보 캠페인

출처: 네이버 이미지

감사합니다.